

## “단체여행 알차게 즐기세요” 성주군,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설 연휴를 앞두고 경상북도 성주군이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9일 성주군에 따르면 관외 거주 4인 이상 국내 단체관광객이 성주를 방문할 경우 1인당 1만 5000원의 관광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박까지 머무는 체류형 관광객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이뤄진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여행 하루 전까지 사전 신청서를 성주군에 제출해야 한다. 여행을 마친 뒤에는 군내 관광지 방문과 관내 식당 이용 등 요건을 충족한 후 20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다음 달에 지급된다.

숙박은 성주군에 신고·등록된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농촌 민박도 인정된다. 식사는 관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서 1인 1식 기준 8000원 이상 이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성주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설 연휴 기간 관광객 유입과 지역 내 소비가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체 여행객의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은 성주를 처음 찾는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라며 “설 연휴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성주를 찾아 지역 곳곳의 매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전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세부 기준은 성주군청 고시·공고 게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주=이찬희 기자 chlee2@skyedaily.com



경상남도가 미래차 산업 전환을 선도할 전문기업 육성 나선다. 자동차부품 기업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경상남도

## 경남도, 미래차 산업 전환 선도 설명회 개최… 전문기업 육성

경상남도가 미래차 산업 전환 선도할 전문기업 육성 나선다.

9일 경남도는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6일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자동차부품 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래차 산업 전환에 필요한 기술개발, 사업화, 공정기술 혁신 등 각종 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80여 개 자동차부품 기업이 참석해 미래차 전환 지원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동화(EV),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 중심의 기존 부품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전동화 부품과 전장부품, 열관리,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 부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남 자동차부품 기업은 내연기관 부품 비중이 높아 생존과 성장을 이여가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와 공정 혁신, 미래차 핵심 부품 분야로의 사업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업 신청은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중이며 경남도는 3월까지 올해 추진하는 5개 기업 지원 사업을 순차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창원=김태인 기자 duck8421@naver.com

# 경남 농업 대전환… 스마트농업에 1109억 원 투입

인력·생산기반·기술 확산까지 단계별 지원  
청년농 2600명 육성… 전문 인력 풀 확대  
2030년까지 온실 10% 스마트팜 전환 목표

경상남도가 농업 구조 전환을 위한 대규모 스마트농업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총 1109억 원을 투입하는 ‘2026년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업 생산 방식 전반을 스마트기술 중심으로 재편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3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경남도는 인력 양성부터 생산 기반 구축, 기술 확산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농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우선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농업 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올해 청년 스

마트농업인 2600명을 육성하고 2030년까지 3000명을 목표로 전문 인력 풀을 확대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과정 수료생도 올해까지 230명, 2030년까지 43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수료생에게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기회를 제공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분야에는 6개 사업, 242억 원이 투입된다.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구축도 속도를 낸다. 도내 온실 1만ha 가운데 올해 350ha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1000ha로 확대해 전체 온실의 약 10%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수 품목을 중심으



경상남도가 농업 대전환을 본격화한다. 2023년 7월 촬영된 스마트팜 혁신밸리(왼쪽)와 스마트팜.



경상남도

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재해예방시설도 확대된다. 올해 170ha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500ha까지 늘려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30개소에 133억 원 △10ha 규모 분양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에 89억 원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7개소 조성에 22억 원을 지원한다.

시설원에 분야에서는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200ha에 110억 원 △시설원에 온실 에너지 절감시설 35ha에 36억 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에너지 자립형 신재생에너지시설 7.7ha 조성에 52억 원을 편성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병행한다.

축산 분야 역시 △축사시설 현대화 10개소에 108억 원 △ICT 융복합 지원 33개소

에 56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축산 기반을 강화한다. 이 분야에는 19개 사업, 624억 원이 배정됐다.

스마트기술 연구·개발·확산 분야에는 8개 사업, 243억 원이 투입된다. 교육과 컨설팅, 시범사업을 연계해 초보 농가도 스마트기술을 쉽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확산을 추진한다.

창원=김태인 기자 duck8421@naver.com

## 전남도 “자연 품은 마을 한눈에”… 관광 랜드마크 구축 속도



전라남도가 전남관광 랜드마크 구축 본격화에 나섰다. 7일 김영록 지사가 7일 ‘구례 섬진강 케이블카 설치사업 기공식’에서 내빈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라남도

섬진강 케이블카 기공식… 총 541억 투입  
전남·광주 내륙권 최장 길이 2.34km 조성

전라남도가 전남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꿀 ‘구례 오산권역 섬진강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7일 섬진강 케이블카 하류정류장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개호 국회의원·김순호 구례군수·유관기관 관계자와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 541억 원이 투입되며 민간자본 470억 원과 함께 주차장·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구례군 군비 71억 원이 반영됐다. 구례군은 2022년 3월 다우와 실시협약을 했으며 2024년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케이블카는 총연장 2.34km로 전남·광주 내륙권 케이블카 가운데 가장 긴 노

선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산 정상에 오르면 섬진강과 지리산·사성암·자연을 품은 마을 전경이 한눈에 펼쳐져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섬진강 케이블카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 군민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기공식으로 이어졌다”며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구례 관광의 새로운 구심점이자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주=하방수 기자 hbs@skyedaily.com

## 광주시, 백운~매곡 BRT 2028년말 개통… 중앙차로 운행

〈간선급행버스체계〉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전환  
신속성·정시성·편의성 확보

광주광역시와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 대전환을 위한 혁신 대안으로 ‘백운~매곡 BRT 개발계획’을 내놴다.

9일 광주광역시는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 용역 결과와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최종 보고회에는 광주시와 자치구·광주경찰청·한국교통연구원·광주연구원 관련기관 관계자와 교통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광전권역 대차·보 특별교통대책’ 중 하나로 추진되는 백운~매곡 BRT 구축 사

업은 남구 옛 대동고에서 백운교차로~농성교차로~광천사거리~경신여고사거리를 경유해 북구 광주공고에 이르는 8.67km 구간에 도입한다.

광주시는 BRT 구축으로 광전권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신속성·정시성·편의성을 확보해 승용차 중심 교통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계획안의 완성도 높였다.

‘백운~매곡 BRT 개발계획’에는 총사업비 453억 원을 투입해 BRT 전용도로 구축·정류장 설치·개편·교차로 교통체계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 등이 담겼다.

BRT 정류장은 41개소가 운영된다. 시

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버스정류장과 인접한 위치에 중앙정류장 33개소를 설치하고 8개소는 기존 가로변 정류장을 활용한다. 전용차량은 도로·운행 여건 등을 고려해 친환경 저상버스 7대에 비 1대 포함을 마련하고 배차간격은 15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BRT가 구축되면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6.6km/h에서 21.4km/h로 28.9% 향상되고 이용 수효는 1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동시간 단축 등 버스 교통환경 개선과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백운~매곡 BRT 개발계획 고시를 마치고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목표 개통 시점은 2028년 말이다.

광주=하방수 기자 hbs@skyedaily.com

## 부산, 학폭 신고 건수 2473건… 10% 뚫

〈2025년 12월 기준〉 〈2024년 12월 대비〉

부산지역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지난해 12월 기준 247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7건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성과가 10년간 코로나 상황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해 오던 추세가 최근 추진해 온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의 구조적 전환이 현장에서 긍정적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교육청은 2023년 하반기부터 처벌 중심에서 교육적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과거해학생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대응 기틀을 마련했다.

2024년에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전격 시행해 교사가 사안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원스톱 회복·치유·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해 교육적 해결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교육청은 이 같은 학폭 신고 10% 감소 성과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안착시키기로 하고 ‘20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 방향을 ‘학생과 교육공동체를 회복·치유하는 교육적 해결 강화’로 정하고, 일명 ‘일기예보’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주력기로 했다. ‘일기예보’는 일상적인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기본에 충실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예외없는 공정한 사안처리, 보호하고 치유하는 관계회복 지원의 앞 글자도 단순 처벌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학교의 구조적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신규사업을 통해 이를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구미시 구미파크골프장과 선산파크골프장이 신규 공인인증을 획득했다.

구미시

## 구미시 ‘파크골프 성지’ 도약

공인골프장 3곳 확보… 6월 대통령기 대회유치

경상북도 구미시가 ‘구미파크골프장’ ‘선산파크골프장’ 신규 공인인증을 획득하면서 전국 최대 공인파크골프장을 보유하고 6월 ‘2026년 제3회 대통령기 전국파크골프대회’유치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구미시의 공인인증 파크골프장은 2019년 국내 1호 공인구장으로 지정 받은 동락파크골프장까지 총 3곳이며 연간 50~60만 명이 구미를 찾아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인구장은 코스 규격과 시설·안전성 등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된다. 시는 이번 인증은 구미시 파크골프장이 갖춘 시설 경쟁력과 운영 수준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공인구장으로 지정되면 대한파크골

프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해진다. 현재 구미시는 9개 구장·총 288홀의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이는 경북 도내 최대 규모이자 전국 2위에 해당한다.

구미파크골프장에는 36홀 규모의 경기 전용 구장을 추가 조성해 전국대회와 각종 리그전·클럽 월례회 등 중가하는 대회 유치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일반 이용객과 동호인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2026년 제3회 대통령기 전국파크골프대회’는 6월12,13일 이틀간 동락파크골프장에서 열린다. 구미시는 2022년부터 ‘구미배 전국파크골프대회’를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회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다.

구미=이찬희 기자 chlee2@skyedaily.com